



초록연필의 시 8

## 아! 깜짝 놀라는 소리

- ★ 초등 <국어> 3-1가 수록 도서

신형건 지음 | 강나래, 김지현 그림 | 푸른책들 펴냄  
152x195 | 값 11,800원 | 초판 1쇄 2016년 6월 30일  
ISBN 978-89-5798-522-9 74810 | 96쪽  
분야 - 동시 | 대상 독자 - 초등 중~고학년

### 책 소개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끼며 "아!" 하고 저도 모르게 탄성을 지르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시가 탄생하는 순간이라고 시인은 말한다. 시인은 사소한 순간마다 눈이 동그래지곤 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아이들에겐 어른들보다 훨씬 낯설고 놀라운 것들이 많다. 자연의 온갖 생명들은 어찌나 신기하게 생겼는지, 게다가 세상엔 요리조리 뜯어봐도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 수 없는 사물들도 천지다. 때마다 입으로 터져 나오지 않아도 마음속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이 탄성들이 아이들을 한 뼘 또 한 뼘 자라게 한다. 동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시인은 바로 그 "아!" 하고 깜짝 놀라는 소리가 '시를 태어나게 하는 첫말'이라고 표현한다.

『아! 깜짝 놀라는 소리』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시 「공 튀는 소리」 「넌 바보다」 「거인들이 사는 나라」 「그림자」 등 9편이 실리며 아이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시를 써온 신형건 시인의 동시집이다. 이 동시집엔 제목이 주는 느낌 그대로 우리가 일상에서, 혹은 자연을 대하며 깜짝 놀라는 순간, 별안간 웃음이 나오는 순간, 갑작스레 마음이 찡해지는 순간들이 담겨 있다. 맑은 동심으로 바라보는 평범한 듯 특별한 감동의 순간들이 담긴 시들을 통해 우리는 풍부한 감수성을 선물 받는다. 또한 환경 문제, 위안부 소녀상 이야기 등 사회적 이슈를 다룬 동시들도 깊은 공감을 자아낸다.

## 읽기 전에

1. 지금까지 자신도 모르게 “아!” 하고 탄성을 지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언제 어떤 일로 그랬었나요?

2. 동시집 제목과 표지 그림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 말해 보세요.



3. 동시집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우선 그림만 살펴보세요. 그러다가 마음이 끌리는 쪽에 멈추고, 제목과 그림만 보면서 무슨 내용의 시일까 상상해 보세요.

## 읽은 후에

1. 마음에 가장 와 닿는 시는 어떤 시였나요? 한 편을 골라 느낌을 잘 살려 낭송해 보세요.
2. 이 동시집엔 감각적인 표현을 살린 시들이 많이 있어요. 보고(시각), 듣고(청각), 냄새 맡고(후각), 맛보고(미각), 닿는(촉각) 느낌이 들어 있는 시를 각각 1편씩 찾아 보세요.
3. 자연을 소재로 한 시들에 나오는 여러 동식물 중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있는 것들의 이름을 세 가지 이상 적어 보세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가장 궁금한 것의 이름도 한 가지만 적어 보세요.
4. 시 「공 튀는 소리」(56~57쪽)를 읽고 '시에서 말하는 이'는 어떤 상황에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후 활동 자료

5. 시 「밤」(25쪽)에 여러 번 나오는 '밤'이라는 동음이의어(같은 발음 다른 뜻의 낱말)의 의미를 잘 파악한 뒤 장단음(긴 소리와 짧은 소리)을 잘 구분하여 천천히 낭송해 보세요.

6. 인터넷에서 김연아 선수의 밴쿠버 올림픽 프리 스케이팅 동영상을 찾아본 뒤, 시 「파란 음표」(76~77쪽)를 읽고 느낌을 말해 보세요.

7. 「위안부 소녀상의 일기」(84~85쪽)는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사실, 그리고 최근에 '위안부 소녀상(평화의 소녀상)'과 관련하여 실제로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한 시예요.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고 각자 아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 더 나아가기

1. 그림이 없는 시 중에서 마음에 드는 시를 골라 그림을 그려 보세요.

2. 가장 재미있게 읽은 시를 골라, 그 시와 비슷한 형식과 느낌을 살리며, 자기 이야기를 담은 시를 다시 써 보세요.